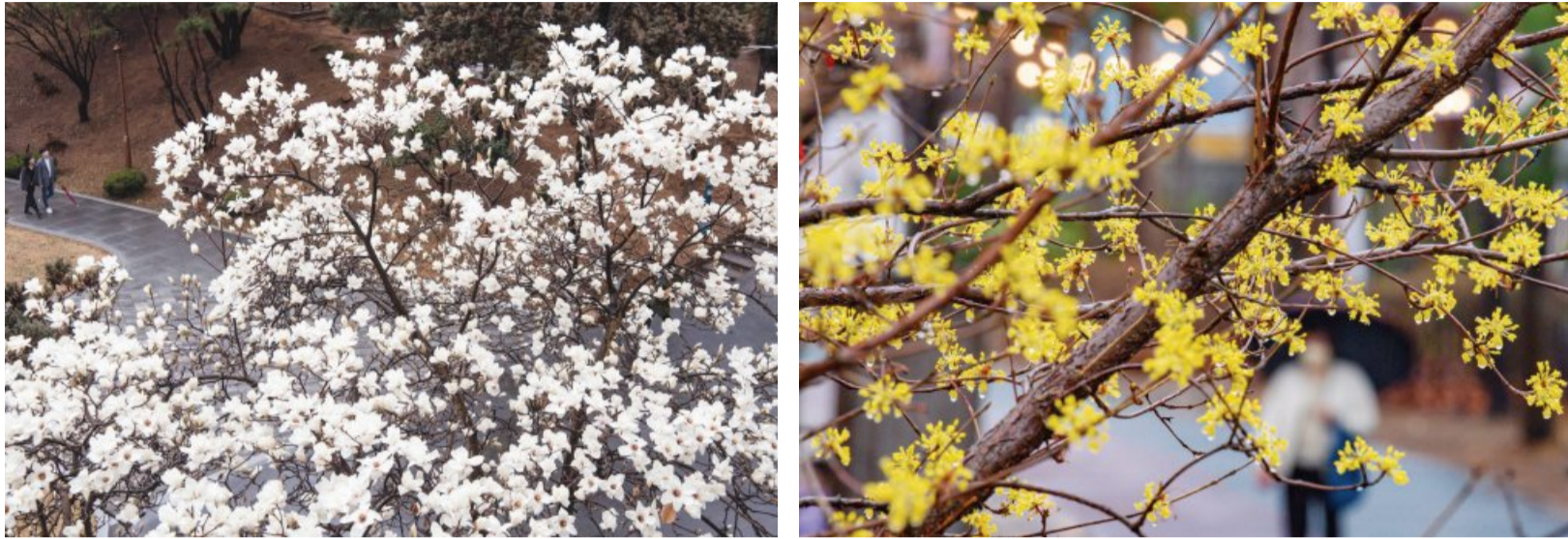


목련꽃·산수유 활짝 ... 광주에 봄이 왔나 봄



13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교정에 목련꽃(왼쪽)과 남부대남로에 산수유가 꽃망울을 터뜨려 봄소식을 전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혁신 없이 민심 눈높이 못맞춘다

뉴스초점 - 위기의 민주당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정권을 차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호남 민심을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다. 촛불 혁명으로 집권하고 과반을 훌쩍 넘는 172석의 의석에 지방권력까지 장악했음에도 정권을 넘겨준 민주당이 치열한 성찰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졌잘짜'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역대 최소표차 패배, 최다 득표 낙선 등이 근거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윤호중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원내대표 선출 등을 통해 전열을 정비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 공방과 혁신 논란 등이 거세질 경우, 당내 갈등이 커질 수 있어 '질서 있는 전열 정비'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졌잘짜' 프레임과 '전열 정비' 명분으로 대선 패배 책임론을 비껴가려 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대선 패배의 최대 요인은 정권교체 여인이었다는 점에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자기당적 주장을 내놓기 보다는 뼈를 깎는 성찰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이번 대선의 접전은 정치 초년생에 각종 논란이 많았던 윤

총불혁명 5년 만에 정권 잃어
호남 '정치적 섬' 고립 우려
정부 실정 책임 있는 인사
각종 비리 연루 현직 단체장들
지방선거 불출마하고
차세대 인재들에 문호 넓혀야

석열 국민의힘 후보였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른 한편으로는 실용으로 무장한 이재명 후보였기에 과반이 넘는 정권교체론 속에서 그나마 접전을 이룬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만큼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의 역할과 존재감이 미미했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안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거대 야당이라는 오만에 빠져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내년 총선까지 2년이나 남았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변화와 혁신이 실종된 민주당의 모습으로 6월 지방선거 대패가 예고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지방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에서 국민적 기대감이 국민의힘 지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과감한 국민통합 드라이브에 나선다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전폭적 지지를 보냈던 호남 민심의 저변에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과 미래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대로 가

다가는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대패, 호남만 '정치적 섬'으로 전락하면서 미래 동력을 잃지 않느냐는 것이다.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심리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선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변화와 혁신이 담보됐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감한 정치 혁신과 헌신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호남 민심 이반은 차기 총선에서도 민주당의 참패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록된 해체 수준의 정치 교체에 나서는 한편 혁신 공천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실패에 책임 있는 인사들이 지방선거 불출마 등 헌신의 모습을 보이고 능력이 검증된 차세대 인재들의 등용문을 넓혀 시대와의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각종 비리 등에 연루된 현직 단체장들에 대한 엄중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현역 국회의원들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일부 지역 단체장 공천의 경우, 시·도당에 맡기기보다 중앙당 차원의 현미경 검증도 요구되고 있다.

호남 정치권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대선에서 호남 정치권의 역할과 목소리가 제한적이었던 것이다. 초·재선 의원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지만 호남 정치 특유의 도전 정신이 사라졌다는 비판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위기 국면에서 호남 정치권이 정치 개혁의 주체로, 차기 정당 대회에서 과감한 정치적 도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알립니다



광주일보가 인재를 찾습니다

SINCE 1952 제70기 수습기자 모집

올해로 창사 70주년을 맞은 호남 대표 정론지 광주일보가 열정과 패기, 특독 특취는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광주일보는 그동안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사건의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발굴, 보도하면서 독자와 지역민의 대변자를 자임해왔습니다.

신문과 인터넷·모바일이 어우러진 융합미디어를 지향하는 광주일보에서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십시오.

호남언론 증가에서 100년 신문의 역사를 열 어갈 창의적인 사고와 정열, 지혜와 용기를 가진 젊은이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모집대상	전형절차	자격
수습기자 0명	1차 서류전형 2차 심층면접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전형일정	일정 및 장소
지원서접수	3월 14(월)~28일(월) 방문 및 우편 메일(chongmu@kwangju.co.kr) 접수
서류전형 발표	3월 31일(목) 개별통보
심층면접	4월 4일(월) 본사 10층
최종합격자 발표	4월 6일(수) 지면 및 개별통보

제출서류	양식
입사지원서 1부	양식 광주일보 홈페이지 다운로드
자기소개서 1부	A4 1장 이내
외국어 성적증명서	TOEIC 또는 TOEFL 성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석사학위 소지자는 대학졸업증명서 포함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석사학위 소지자는 대학성적증명서 포함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에 한함

▶접수처: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빌딩 10층 광주일보사 경영지원국

光州日報社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장에 안철수

부위원장 권영세 임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국민의당 안철수(60) 대표를, 부위원장에는 4선의 권영세(63) 의원, 기획위원장에 원희룡(58) 전 제주지사를 각각 임명했다. 이는 윤 당선인이 안 대표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약속했던 공동정부 구성의 첫발을 떤 것으로 평가되며, 측근으로 분류되는 권 의원과 원 지사의 인수위 임명도 눈에 띈다.

【관련기사 3면】
윤 당선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일 잘하는 정부, 능력있는 정부로 국민을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며 이 같은 인선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안 대표는 인수위원장으로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밑그림을 그리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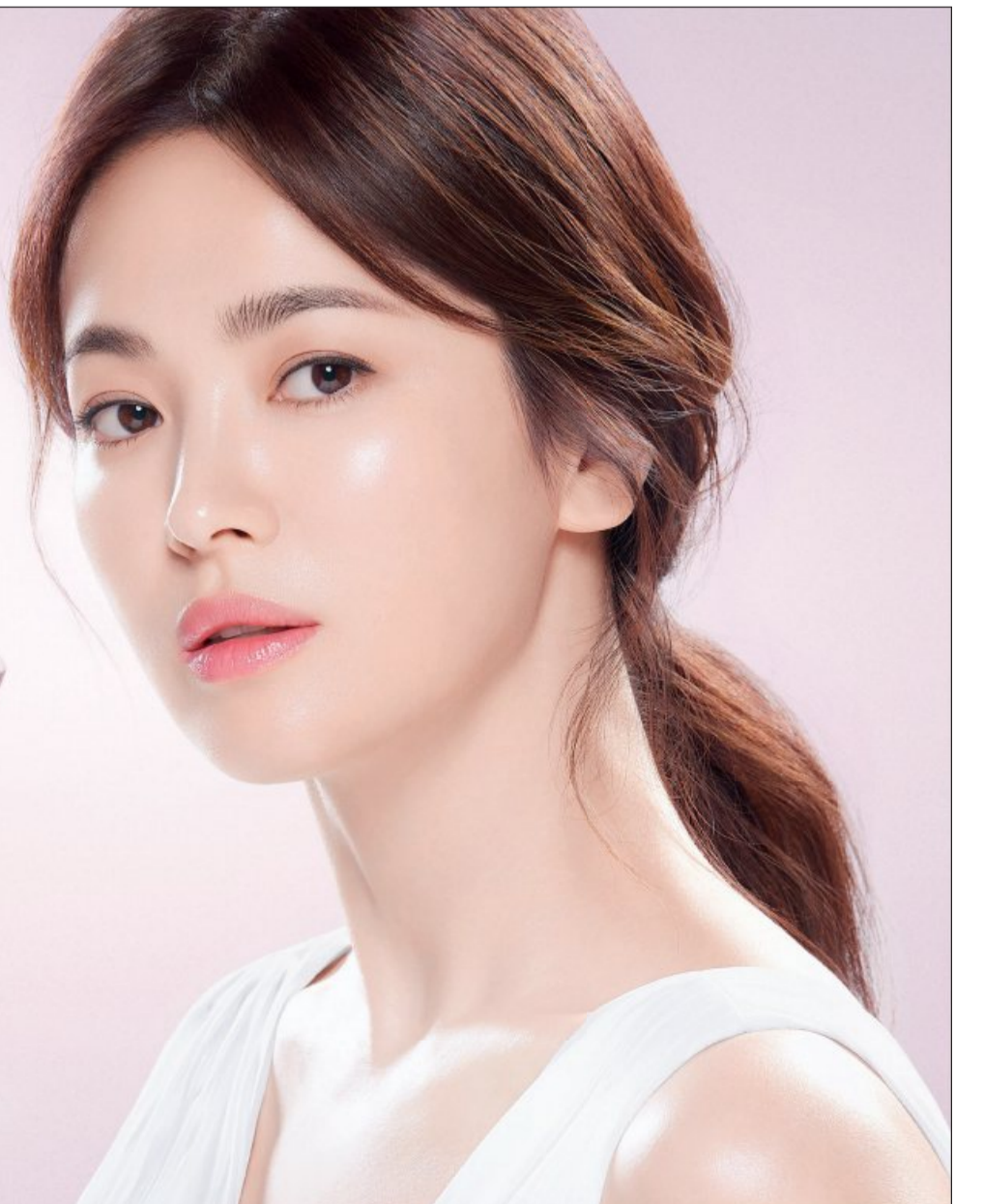
윤 당선인은 "안 대표는 저와 국정운영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선거 이후에도 제가 요청해서 먼저 자리를 가진 바 있다"며 "안 대표도 인수위원회를 이끌 의지가 있고, 저 역시도 책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영세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풍부한 의정 경험과 경륜으로 지난 선거 과정에서 유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줬다"며 "안 위원장과 함께 정부인수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바이탈뷰티

마시는 프리미엄 콜라겐 슈퍼콜라겐 골드



구매문의: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080-023-5454